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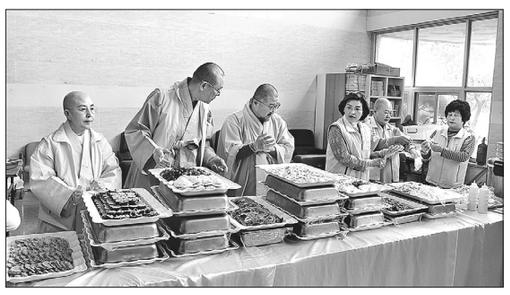
"10.27법난, 역사 기억하자"

조계종 10.27법난 39주년 기념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10.27법난 제3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이면 법난이 일어난 지 40년이 도니다. 더 이상 기념관 건립을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멀지 않은 시간에 불사 계획을 종도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금곡 스님은 "법난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살아계실 때 결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이 규명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수행자로서 원만한 삶의 회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희생자는 추모하고 피해자는 치유해 모든 종도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 상을 펼쳐낼 수 있는 날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찾아가는 어르신 생일상

마이산 탑사 · 쌍봉사 봉사활동 펼쳐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월 23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단장 윤복길)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서기옥)가 마련했다.

생일잔치에는 진성 스님, 보경 스님, 성덕사 도홍 스님, 산청 왕복사 자우 스님 등 스님들과 진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생일케이크를 앞에 두고 어르신들과 생일축하노래를 불렀다.

탑밴드의 난타공연과 색소폰 연주에 이어 쌍봉사 보경 스님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를 불렀으며, 지역가수 서윤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성 스님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했던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역의 어른으로서 남아계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만원력 · 미래불교 결사 공동체 열겠다"



Interview

'금강경 공부 결사' 안거 여는 일감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15일부터 12회 강독 법회
참선 · 문답도… '정혜쌍수' 강좌
일지로 108배 · 경전읽기 유도해
20 · 30대 참여자에겐 회비 할인

"현재 한국불교는 '미래불교'를 위한 새로운 수행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수행과 보시, 회향이 이뤄지는 부처님 공동체를 오래 전부터 꿈꿨습니다. 지금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도 결국 이 같은 가치와 맞닿습니다. 먼저 경전 공부 결사를 통해 백만원력과 미래불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사진〉은 〈금강경〉 공부 결사'를 시작하는 연유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일감 스님은 도서출판 민족사와 함께 동안거 결제 직후인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두산위브 '탄허강숙(634호)'에서 '2019년 동안거 사부대중 수행결사 〈금강경〉 강독법회'를 개최한다.

총 12회 법회가 이뤄지는 수행결사는 단순 강독에만 그치지 않는다. 결사 동참자는 매일 108배와 〈금강경〉 1독을 하고 조계종 포교원에서 제작한 '수행일지'에 수행일기를 기록해야 한다. '수행일지'는 매주 강독법회에서 점검받아야 한다.

강독 법회는 선교를 겸수한 '정혜쌍수'의 특징도 가진다. 법회는 삼귀의 · 참선 · 문답 · 〈금강경〉 강독 · 법문 순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일감 스님의 저서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으로 교재와 수행일지는 무료로 배포된다. 수행결사는 오대산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순례로 회향되며 법회 동참자들의 뜻을 모아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서울에서 여러 소임을 보고 있는데 안거철이 되면 수행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안거는 한 곳에 모여 참선 정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에서 포교나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마음 내어 공부 · 수행결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안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독법회는 사부대중이 경전을 강독하고 매일 수행하면서 서로를 절차탁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강경〉 공부 결사'에 앞서 알려진 '위례천막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행결사가 한국불교에는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족한 것이 '다양함'입니다. 다양한 결사는 한국불교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수행붐'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불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한편, '〈금강경〉 공부 결사'는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인당 20만원. 단, 젊은 공부인을 위해 20대는 10만원, 30대는 15만원으로 할인된다. 접수는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과 전화로 하면 된다. (02)732-2403~4

"전통 사경으로 부처님 말씀 장엄"

대한민국 대한명인 전통사경 제1호 겸당 오현주 작가



"대한명인 오현주란 이름은 저를 배려와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명인 추대식에서 겸당 오현주 작가〈사진〉가 전통사경 부분에서 명인으로 추대됐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가 주최한 명인 추대에서 고려 전통사경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명인이 인정됐다. 오 작가는 사경을 하도록 이끌어 준 은사스님과 도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몇 번이나 명인 추대 제의가 있었지만 후학 양성과 활동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해 거절해왔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은사스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 작가는 직지 국제사경공모전 연 3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탄허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경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 동아 국제미술대전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변상도와 사경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서예 문인화 심사위원, 한국 서가협회(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 서예전람회(국전) 현대문인화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한 · 중(韓 · 中) 서법 북경 초대전에서 고려사경과 변상도를 전시했으며 인도 초대 마더 테레사기념관 벽화, CMS college에 훈민정음을 조형화하여 벽화를 작업했다.

"오직 사경만 할 수 있길 서원하고 이후 '전법'을 원력으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후학을 양성하며 부처님 말씀을 장엄하는 사경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오 작가의 발원이다. 오 작가는 전통사경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려 사경 도반이 많아지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발원을 쉬지 않고 있다. 오 작가는 사경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경은 문자사리, 즉 법사리라고도 하며 부처님 진신사리와 동격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재료와 도구를 최상으로 선택해 사경 수행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경 수행을 통해 글자를 쓸 때 자유자재한 운필법인 중봉(中鋒)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사상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산사 점찰신앙 살펴보다

금산사–한국정토학회, 제23회 학술대회서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와 한국정토학회(회장 김광식)는 10월 1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와 점찰신앙'을 주제로 제2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前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김광식 한국정토학회장,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 스님 등 스님들과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 충남대 김방룡 교수 등 학자까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 예금보험공사 MOU

10월 22일, 학생 취업역량강화 등 협력



동국대(총장 윤성이)와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10월 22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따라 양 기관은 △도서교류 △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학술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재직자의 특강, 맞춤형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자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사회적기업가 양성 박차

조계종 사업부 '불교 사회적경제 워크숍' 개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주혜)는 10월 18~19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사람과사회적경제가 주관한 '불교 사회적경제 소셜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사찰 종무원과 스님을 대상으로 창업 입문교육을 실시, 종교계의 유 · 무형 자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가로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윤호섭 기자**